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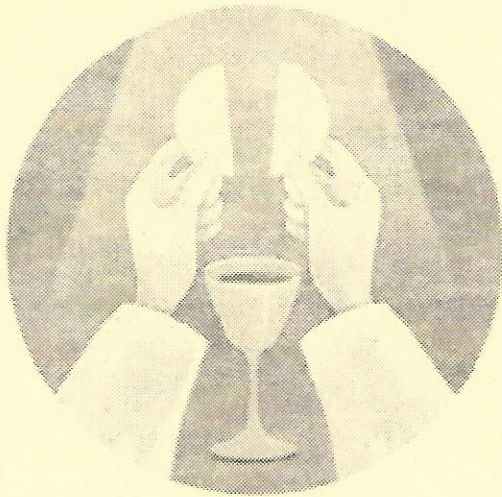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제35권 28호(나해) 2015년 6월7일

[묵상]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성체성사 안에 교회의 모든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
즉 믿을 교리, 지킬 계명, 은총을 얻는 방법 이 그것이다.

신자들이 '믿을 교리'의 핵심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수난과 죽음도, 성령을 보내 주심도, 교회를 세우심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온전히 표현되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이다.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어주신다. 이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사랑은 없다.
그러므로 성체 성사 안에 사랑의 계명을 사는 완전한 모범을 보게 된다.

하느님의 사랑을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은총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와 성사에 있다.
미사 성체야말로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이다.

성체 성사야말로 가장 큰 성사이다.
교회는 아무런 주저 없이 '성체성사는 모든 은총의 샘이다'고 말한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애자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10: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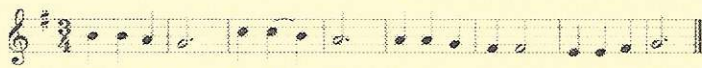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김상진 토마스
주일 낮 미사	(생) 유보나 보나& 이범주 다니엘, 성호재 시몬& 성아라 매도우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이현호 요한, 현시영 요셉, 이용식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권분남 콜롬바, 변세연 안드레아&변혜경 올리안나, 노근용 바오로 & 이금순 마리아, 송봉현 요셉, 김상진 토마스,구연석, 이필연 마르첼로, 이종수마틴, (생)서성용 베드로, 성령기도회 회원들, 레지오마리에단원들, 유영균 우르바노, 김영덕다니엘 & 박현주 카타리나, 주일학교 첫 영성체 어린이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24,3-8

화답송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
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9,11-15

부속가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방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음 마르코(Mark) 14,12-16.22-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291	106	106
봉헌	255	257	255
성체	283	280	292
파견	364	313	313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제베대오의 아들이며 형 야고보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어떤 제자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형제에 대한 스승의 사랑이 각별하다 하여 다른 사도들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4,21-22 /마르10,35-45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사도단의 대표격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본래 성급하고 편협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자 화가 난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과격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네르게스’, 곧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9,38-41/ 루카9,51-56

생애 초반에 요한은 화를 잘 내고 도량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승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체험은 요한을 온유하고 사랑 많은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잡히셨을 때 공포에 질려 요한도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십자가 밑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왔습니다.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스승의 임종을 지키며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골고타 언덕의 정상에서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전형적인모습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요한은 아주 늙도록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체로 간신히 집회에 참석해 서는 설교를 통해 늘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라며 사랑만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19,17-27

요한은 성령 강림 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파트모스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에페소로 돌아가, 서기 100년경에 90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에페소 언덕에는 요한이 마지막까지 성모님을 모셨다는 집터가 있어 많은 순례객이 찾아옵니다.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와 ()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마르9,2)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시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에 모셨다.”(요한19,27)

미사는 영원을 위한 파스카제사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스카 만찬을 마련해주신 것을 전해줍니다. 파스카란 ‘건너뛰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유목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파스카 제사’를 지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질병이나 이리떼가 자신들의 양 떼를 침범하지 않고, 자신들의 양 우리를 ‘건너뛰기’를 바랬습니다. 모세는 이 제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단순히 가축들만의 무사안일을 위한 제사에서,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의 삶으로 ‘건너뛰는’ 제사로 승격시켰습니다. 이 집트 탈출은 400여 년 지속된 종살이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36년간 일제압박에서 살아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식민지의 삶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구원의 키워드는 모세 시대처럼 해방이었습니다. 해방이 그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파스카 제사를 더욱더 높은 차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이, 세상 만물이 생성되고 소멸되듯이, 태어나서 죽고 마는 우리 인간들이 유한한 삶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미사 성체는 우리의 제산을 보호해달라는 과거 유목민의 기원을 뛰어넘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청원도 뛰어넘었습니다. 한 많은 이 세상의 속절없는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뛰어넘는’ 파스카 제사가 되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영원한 삶’은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메이아르 샤르댕 신부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존재하는 것일까? 어떻게 무(無)가 유(有)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무한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무(無)에서 유(有)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파스카 제사’는 기적의 제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처음부터 기적으로 일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

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육화부터 기적입니다. 하느님의 육화(肉化)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신화(神化)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처럼 큰 하느님의 사랑은 이 미사성체의 중심인 성체성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를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바치는 내 몸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를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릴 내 피다.” 우리가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당신 자신을내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미사성체는 사랑의 제사입니다. 기적의 제사입니다. 사랑은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 조규만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당신의 해와 달

과학은 지구가 둥글어
해와 달이 뜬다 하고,
동화는 남매가 호랑이를 피해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뜬다 하고,
종교는 신이 세상을 지어
해와 달이 뜬다 하고,
시인은 ‘당신’ 때문에
해와 달이 뜬다 하는데
그건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기왕에 뜨고 지는 것,
시인의 해와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김금자 테레사	박혜경 레나타
제물봉헌자			P.V. 2,4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3반 요셉회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7일, 배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 교회는 매년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정하여, 예수 성심(聖心)을 공경하는 신심 행사를 통해 예수 성심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 오늘(6월7일)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성사의 신비를 기리는 날입니다.
 ☆*****

- ◆ **본당 신부님 부산교구 사제연수 참석**
 - 일정 : 6월9일~6월11일
 - 이 기간 동안 평일 미사 없습니다(화 수, 목)
 - 12일(금) 오전 8:30 예수 성심 대 축일 미사
부산 교구 사제단 공동집전
 - 사무실은 9일 (화) 휴무입니다.
- ☼ **첫영성체 축하합니다.** ☼
- ◆ **주일학교 어린이 첫영성체 예식과 축하식**
 - 오늘 주일(7일)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낮 11시 미사중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13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의 성체를 처음으로 모십니다.
 - 첫 영성체 대상자 : 권이안, 김가브리엘라, 김라파엘라, 박레오, 박미카엘, 박안젤라, 박해리슨, 이클라라, 이가브리엘, 이니콜라스, 장줄리아, 정비오, 조 헬레나, (이상 13명)
 - 예식이 끝난 후 천교장에서 축하식이 있습니다.
- ◆ **소공동체, 성모회, 자모회 샌 후안 카프스트라노 미션방문**
 - 일시 : 6월13일(토) 오전 8시성당 출발

- 회비 : \$10 (입장료별도)
- 문의 : 오혜숙 루시아 ☎310-490-335
- ◆ **요셉회 정기 총회 공고**
 - 일시 : 6월21일(주일) 11시 미사후
 - 장소 : 강당
 - 정기총회 안건 : 신임회장 선출및 회칙, 일년행사계획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 **양업회 하계 친목회(BBQ)**
 - 일시: 6월 7일(주일 낮 미사후 천교장 청소후)
 - 양업 회원님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많은 참석바랍니다.
- ◆ **2015년 제28회 남가주 성령체신대회**
 - 주제 :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것이다.(루카 10:28)
 - 일시 : 7월25일(토)오전 8시~오후 10시,
7월26(주일), 오전 8시~오후 6시,
 - 강사 : 황창연 신부(성팔립보 생테마을 관장),
윤민재 신부(용인대리구 성령지도신부),
김경희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 장소 : 이스트LA 칼리지 1301 Avenida Cesar Chavez
Monterey Park, CA 91754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준비물: 도시락, 물
 - 문의 : 강아네스 ☎ (310)780-0369
- ◆ 고 이종수 마틴 (이영석 크리스토퍼)의 가족들이 장례미사에 대한 감사로 11시 미사 후 전 신자께 떡을 대접합니다

-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7일(주일) *이영석 크리스토퍼가족 : 떡
* 주일학교 : 뷔페,도시락
 - 6월14일(주일) *토런스 남 1,2반 (\$3)
* 주일학교 : 햄 & 치즈 샌드위치(3,4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인모 고천용 구자운 권영옥 김영경 김 옥						성전헌금	장인모 고천용 구자운 김 옥 김재희 김충섭					
	김원규	김은주	김인성	김재희	김충섭	남명자		남명자	박정희	석순영	성낙호	오세원	윤선희
민성원	박정희	박종민	박종열	석순영	성낙호		이현주	정남형	정혜영	최태훈	송미카엘		
송기철	엄혜은	오상준	오세원	오일순	윤선희								
이경태	이현주	임연조	정남형	정인옥	정혜영								
최태훈	송미카엘					합계:\$3,655							합계 : \$1,525
주일미사 헌금 : \$2,769							감사헌금 : \$200(조소영 수산나)						

공지사항

◆2015-2016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마감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에서 알립니다. 2015-16 학년도의 장학금을 신청하시는 학생들은 요구되는 서류들을 6/14/2015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 Freshman이 되는 학생들은 입학 확인서 (Letter of Admission)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썸머캠프

- 장소: Oak Gle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일시: 6월26일 금요일 - 6월 28일 일요일
- 대상: 3학년-12학년 (선착순 30명)
- 참가비: \$60 (no refund)

◆ 2015-2016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대상: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6월14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9월13일부터 등록비 인상 (\$160, \$140, \$120)
- 자모회비: \$50(가정당)

◆한국학교소식

- 학기말 시험 (6월 7일) - 시상: 6월 14일 종강식
- 2014~15년도 종업식: 6월 14일 (1:30 ~ 3:00 pm)
- 2015-16년도 새 학기 등록
기간 - 5월 31일 ~ 6월 14일 매주 일요일
시간 - 10:30 am ~ 12:00 pm
* 6월 14일 까지 등록 시 20% 할인혜택 (SAT 반 제외)
- SAT 시험 준비반 및 여름 특강 수강 신청
기간: 6월 20일~8월 8일 매주 토요일(7월 4일 제외)
시간: 9:30 am~ 12:30 pm
- 문의: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제21차 남가주 선택 주말

- 일 시: 7월 17일(금) ~ 7월 19일(일)
- 대상: 25세~37세 사이의 가톨릭미혼남녀
- 참가비: \$300(본당신부님 지원여부 확인)
- 장소: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Peter Koo (213)605-2817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866-8778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정병옥 율리아 404-160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엄영희 베로니카 539-3377 6/10(일)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6/13(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6/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병환 안토니오 780-3258 6/6(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명렬 라파엘991-8556 6/13(토) 오후 7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변숙희 린다 617-1132 6/12(금) 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조정석 수산나 625-3312 6/26(금) 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6/20(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최미영 클라라 404-1607 6/8(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유명련 마리아 749-3151 6/13(토) 오후 7시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종두 요한 213-700-6983 6/12(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6/20(토) 오전 11시 강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만나영 제칠리아 617-3568 6/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모임	오후 1시
-------	-------

124위 시복특집<28>

이성례 마리아
(1801~1840년)

... 절대로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잊지 마라.
서로 화목하게 살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만형 토마스가 오기를 기다
려라...

1801년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난 이성례 마리아는 17세에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혼인하여 홍주 다락골의 새터에서 살면서, 후일 두 번째 신부가 된 최양업 토마스를 낳았습니다. 얼마 뒤에 이성례는 가족과 함께 한양으로 이주했는데, 박해의 위험이 있자 다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부평, 수리산 뒤 뜰로 이주했습니다. 그동안 최양업은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떠났습니다. 신앙을 위해 고향과 재산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자주 이주하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모든 어려움과 궁핍을 기쁘게 참아 내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청얼덜 때면, 요셉과 마리아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시던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격려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 최경환이 한양을 오가면서 순교자들의 시신을 찾아 묻어주고 교우들을 돌보자, 이성례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식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포졸들이 수리산 교우 촌에도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해 포졸들을 대접한 다음, 남편 일행을 따라 어린자식들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포도청으로 압송된 그녀는 다음 날부터 팔이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문초와 형벌을 받았으나 용감하게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곤장이나 칼에도 용맹했던 이성례였지만 자식에 대한 모정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아 한 살배기 막둥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매를 맞다가 순교하고 막내아들이 더러운 감옥 바닥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던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성례는 결국 박해자들에게 굴복하고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최양업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내 그녀는 다시 체포되어 형조로 압송되었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당신 여종의 나약함을 굽어보셨습니다. 형조에 이르자 이성례는 용감한 신자들의 권면으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그녀는 재판관 앞으로 나가 전에 한 말을 용감하게 취소했습니다. 또 모성애를 비롯하여 모든 유혹을 용감히 이겨 냈으며, 막내아들을 하느님께 바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성례는 관례대로 마지막 문초와 형벌 끝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절대로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잊지 마라. 서로 화목하게 살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만형 토마스가 오기를 기다려라.” 1840년 1월 31일, 이성례는 당고개에서 영광스럽게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 39세였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목숨보다 소중한 것

[햇별 한 줌]

누구에게나 하나 뿐인 목숨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을까요? 역사상 무수한 사람들이 그 더 소중한 어떤 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한창 주가가 오르는 고위 공직자이자 정치가가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3선 하원의원이자 광산자원부장관을 지낸 폴 콩트와(1895~1966) 씨는 1961년에 퀘벡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 관저는 매우 오래되고 유명한 역사적인 건물이었었는데, 수십 개의 객실과 연회장, 강당을 갖추고 심지어 안에 경당까지 있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열심한 신자였던 콩트와 씨는 다른 정치인들과 손님들, 가족들,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이 경당에서 매일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1966년 2월 21일 밤,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기록적인 추위 속에 이 관저에 화재가 났습니다. 한파로 길이 얼어붙어 소방차의 도착이 늦어지자 콩트와 씨는 아내와 딸, 그리고 열 명이 넘는 손님들을 한 명씩 직접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관저에 거들 다시 들어가는 콩트와 씨를 이미 구조된 사람들이 다들 말렸지만, 그는 “다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말만 하고는 세 번째로 불타는 관저에 들어갔습니다. 노 정치가의 용맹한 활약으로 관저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무사히 탈출했지만, 콩트와 씨 자신은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불길이 잡힌 후 소방관들은 콩트와 씨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콩트와 씨는 경당에 모셔져 있던 성체를 가슴에 품고 숨져 있었습니다.

◆가톨릭 인터넷 굿 뉴스